Economy p/09

요즘 표정관리 힘든 알뜰폰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제291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연아 새 라이벌 꼭꼭 숨었다

피겨 전설 "늘 그랬던 것처럼 연아는 통할 것" p/23

'성장판' 닫힌 기업들 설상가상

매출 마이너스 성장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시행… 재계 "경영위축 우려"

14일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소위 '경제민주화법'이 시행돼 대기업이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논란

재벌의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14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 제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금지 행위 중 하나인 계열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계열사에 기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지금도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개정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의 기업 '기 살리기' 우선

재계는 '경제민주화'에 앞서 '위기 상황인 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던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148개사)의 매출 감소가 전체 상장기업보다 컸다.

전경련이 비금융업 상장회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개 경영지표 중 6개의 2013년 실적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보다도 나빠졌다.

성장성 지표의 경우 기업의 성장점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 ▲총 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세 지표 모두 2009년보다 악화됐다. 또 2009년에도 플러스였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매출액 1조원 이상 148개사의 실적이 더욱 부진했다.

수익성 지표에서도 금융위기 직후 잠시 반등했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이후 3년간 저조한 성적을 이어갔다. 상장기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09년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취약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13년 전체의 37.6%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진 것과 달리 기업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에도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법과 같은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곤기자 kaye1@metroseoul.co.kr

박승희 女쇼트트랙 500m 16년 만에 첫 동메달 박승희가 아쉬움의 눈물을 닦고 플라워 세리머니에서 환하게 웃어보였다. 그는 13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선두로 질주하던 중 상대에 밀려 넘어지는 불운을 겪으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박승희의 동메달은 이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획득한 16년 만의 올림픽 메달이다. <관련기사 22면> /연합뉴스

박 대통령 "안현수가 왜 '빅토르 안'이 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러시아에 귀화해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관련해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안 선수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각 분야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 없는 지도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며 "선수를 발굴함에 있어 저해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우리의 체육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문체부에 지시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왜 창업하려 하시나요?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은 아시죠?" "기술만 하셨지, 마케팅은 생각 안 하셨나봐요."

50대 예비 창업자들을 향해 전문가의 날선 충고가 쏟아졌다. 최근 열린 SK텔레콤의 장년층 창업 포럼이 그 무대였다.

취재차 방문한 현장이었지만 4시간 내내 몰입하며 포럼을 지켜봤다. 포럼에 참석하면서 느낀 장년층의 창업 조건 몇 가지를 밝힌다.

먼저 스마트폰 발달로 창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물건만 잘 만들면 되겠지'란 낙관은 금물이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과 시장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들다. IT를 공부해야 한다.

오랜 직장 경력에서 얻은 권위도 버려야 한다. 직장에서 '갑' 대우를 받았더라도 창업을 하는 순간 '을'이 되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대접받을 일이 많은 직종 출신이라면 몸을 낮추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표현 능력도 잠재워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남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포럼에서 진행된 사업계획 발표가 많이 아쉬웠다. 부정확한 발음과 빠른 말속도만 고쳐도 좋을 것 같다. 자신 있는 모습과 정확한 언어로 사업 아이템을 전달하면 창업의 가장 큰 고민인 투자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왜 창업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백수로 있기 싫어서란 생각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은퇴금을 지키는 상책이다.

성추행·음주운전 등 검사 '줄징계'

법무부는 13일 최근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검찰 여직원을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A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A 검사의 행동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 B 검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9%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C 검사는 자산이 많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해야 했지만 이를 빠뜨리는 바람에 직무 태만으로 선처됐다.

지난해 2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실제 보유 재산보다 23억여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인천지검 D 검사도 견책 대상에 포함됐다. /윤다혜기자

뉴스 & 뉴스

정 총리,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21일 소치행

● 정홍원 국무총리가 2014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러시아 소치를 방문한다.

13일 총리실은 "정 총리가 러시아 소치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2014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출국해 3박4일간 현지에 머문다"고 밝혔다.

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상품권 77장을 나눠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2년 6월 구속 기소됐다.

박 대통령, 케리 미 국무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한·미 관계를 비롯해 북한 이산가족 문제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작은 사진은 케리 장관이 청와대 접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먹는 모습. /연합뉴스

이산상봉 오늘이 고비

북 "훈련 기간엔 불가능" vs 남 "예정대로 해야"…2차 고위급 접촉 주목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어제 고위급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되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25일이고,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북한의 언급대로라면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24~25일에는 상봉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북한은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했다. 우리 측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14일 오전 10시로 접촉 시간을 바꿔 수정 제의했으며 북측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2차 접촉도 1차 때와 같이 우리 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준비를 위해 이번주 내 선발대를 금강산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오바마, 일본 일정 반으로 줄여 한국 온다

4월 아시아 순방때 1박2일 일정…외교·안보 현안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지역 순방 시 한국도 방문한다고 13일(한국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4월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순방은 미국과 이들 4개국의 외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3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미에 이어 두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현정기자 jh@

새누리 "대정부질문 시간 15→12분으로 단축"

새누리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의 시간을 단축하고, 국정감사를 1년에 2차례 나눠 하는 등 국회 제도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매번 국회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데다 중복 질문이 많고, 상임위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정부질문의 실시 시간대와 실시 시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대표는 "현행 의원 1명당 15분(답변 제외)인 질문 시간을 12분으로 줄여 대정부질문 시간대를 오후 2~6시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개최 시기도 통상 회기 초반에서 후반으로 미뤄 상임위 활동 시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활동 실적이 저조한 국회 특위는 끝내고,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한자로 '국(國)'인 국회의원의 배지 문양도 의석을 수렴해 한글 수정을 검토 중이다. /조현정기자 jh@

'유서대필' 22년 만에 무죄

91년 감정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3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강기훈(5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강씨는 1992년 7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그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2012년 10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까지 다시 재판을 받았다. /장선화기자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강기훈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국보법 재심으론 처음

영화 '변호인'의 소재이기도 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부림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 결정을 내렸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았다. /부산=김동기자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고호석(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가 무죄 판결을 받고 기쁨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1989>

그림 박성현

소설가 루슈디 처형 선고

1989년 2월 14일 이란 혁명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소설 '악마의 시'의 저자 살만 루슈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악마의 시'는 인도 출신의 영국 소설가 루슈디가 88년에 낸 소설로, 호메이니는 이 소설이 코란을 악마의 말이라 조롱하고 마호메트의 믿음을 의심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루슈디는 잘 보호 미신생활을 시작했는데 일본인 번역자가 살해됐고 이 책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테러를 당했다. 이후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이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나 루슈디의 사면을 선언했다.

자소서에 스펙 쓰면 '0점'

올 대입부터 적용…수능 영어는 빈칸 채우기 줄이고 쉽게 출제하기로

2015학년도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 성적을 비롯한 외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교육부는 13일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 성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 이수 여부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의 논술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에 논술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수능에서 영어영역에서 난이도가 높은 빈칸 채우기 문항 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다.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편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사항과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국·검 인정 등의 교과서 체제가 오는 7월 발표된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의 외국어고, 자사고 등 고입전형 기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전 예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내년 2월 말께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고입전형이 발표되고, 2016년에는 2018학년도 고입전형이 예고된다. /김다혜기자 kdh@metroseoul.co.kr

빙그레공장 암모니아 탱크 폭발…1명 사망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탱크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13일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께 빙그레 제2공장에서 5톤짜리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암모니아 가스 1.5톤이 인근 주택가로 유출됐다.

이 사고로 실종됐던 협력업체 직원 도모(54)씨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탱크 근처에 있던 권모(50)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과 군부대가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지만 암모니아가 다량 유출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눈 통증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공장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오전 10시30분부터 암모니아 냄새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빙그레 측은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남양주시청에 바로 통보하지 않은 채 자체 점검을 벌였다.

현재 방재당국은 30분마다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unique@

코 막는 소방대원 13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빙그레 제2공장 액화질소 저장탱크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이 화학가스를 피하려 코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 '지지부진'

대저·엄궁·사상대교 등 사업비 확보 못해 착공시기조차 못잡아

서부산권 시대를 여는 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부산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 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세월만 보내고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저대교(7.8㎞ 4차로), 엄궁대교(14.7㎞ 4차로), 사상대교(3.2㎞ 4차로) 등 3개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 사업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서부산권의 잇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을숙도대교와 낙동대교 등 기존 교량이 출퇴근 시간 때만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애초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2020년 완공 예정이었던 엄궁대교(총 사업비 9664억원, 국비 2705억원·시비 2340억원·민자 4619억원)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엄궁대교의 경우 부산시가 2012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반영을 추진했지만 관련 중앙부처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저대교(총 사업비 3132억원, 국비 1396억원·시비 1736억원) 역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전체 사업비 중 기본설계비인 국비 50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나머지 사업비 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2019년 완공 예정인 사상대교(총 공사비 3139억원, 국비 1381억원·시비 1758억원) 역시 사업비를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상대교 건설을 위해 2009년 혼잡도로 지정을 통한 국비 확보를 추진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3개 교량 사업 모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국비 대상 사업 반영이 곤란한 상태이며 시비 투자도 현재 시 재정에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대저대교는 일단 기본설계 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며 엄궁대교는 올해 재차 정부 예비 타당성 대상 반영을 추진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또 사상대교는 부산 강서구 국제물류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해 '산단진입도로'로 지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산대 제2도서관 새단장

부산대 제2도서관이 지난 12일 재단장됐다. 부산대는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화된 제2도서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구조 보강 및 열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7억 9300만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도서관 리모델링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개관하는 제2도서관은 1층에 정보 서비스 공간으로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커먼즈(iCOMMONS)와 어울 교육, 강연회, 영화 상영 등이 가능한 다목적 오디토리움이 들어서며 제1도서관에 비치된 취업 자료를 이전 확대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취업 정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실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로비에는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2~4층은 학습·토론을 위한 공간으로 전망 좋고 쾌적한 창가 열람대, 4층 보존서고를 재조정해 보다 넓어진 노트북열람실 등이 설치됐다. /정혁균기자

세계적 마케팅 어워드 '에피' 상륙

에피코리아 발족 ··3월말까지 대회 출품작 접수

전 세계 4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마케팅 어워드 '에피(Effie)'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에피 월드와이드는 에피 코리아를 발족, 올해 2월부터 제1회 대회 출품작 접수를 시작으로 에피 코리아 어워즈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피 월드와이드 측은 "세계 10대 광고 시장인 한국에서 마케팅 성과에 기여한 캠페인을 시상, 마케팅에 기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독려하기 위해 에피 코리아를 발족하게 됐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메리 리 케인 에피 월드와이드 회장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새롭고 효과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목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캠페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이러한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선정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온 에피 어워즈의 한국 출범은 한국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과학화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피 코리아 어워즈는 2014년 2월 1일부터 출품작 접수를 시작해 오는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출품작을 접수한다.

에피 코리아 출품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라면 매체와 형태를 불문하고 출품 가능하다.

제품서비스(Product & Service) 부문과 스페셜티(Specialty) 부문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에피 월드와이드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주, 브랜드 전문가,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디지털 전문가, 조사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캠페인을 선정, 시상하게 된다.

수상작은 에피 월드와이드의 수상작으로 등록돼 나이키,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성공 캠페인과 함께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또 수상작을 만든 기업(마케터), 대행사, 브랜드와 담당자들 역시 각자 에피 인덱스에 등록돼 세계적인 성공 캠페인을 만들었다는 영예를 얻게 된다.

에피 코리아의 최환진 집행위원장은 "에피가 한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전략과 실행, 성과를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 마케팅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한국 마케팅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제1회 에피 코리아 어워즈의 시상식은 오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에피 코리아의 출품 및 시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effi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혁균기자 jhk@metroseoul.co.kr

교통난 해소 '싸이카 기동순찰대' 배치 13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싸이카 기동순찰대 소속 오토바이 빅4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배치됐지만 활용도가 낮은 오토바이 40대를 모아 기동력을 높인 싸이카 기동순찰대를 조직, 1개 경찰관기동대를 전담 부대로 배치했다. 이 기동순찰대는 교통 단속과 스쿨존 교통약자 보호, 범죄 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산경찰청 제공

화명~양산 도로공사 15·16일 차량 통제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16일 자정까지 '화명~양산시(미전IC~화명IC) 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화명동 성훈아파트 옆 과선교 구간에 대한 차량 전면 통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양방향 전면 통제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은 화명생태공원 내 도로 및 의성로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 모집

부산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어린이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할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3~5학년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월 6일까지다. 문의 051)607-4064.

노인대학 노(老)천당 운영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노(老)천당'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용 금액은 학기당 3만원이다. 문의 051)263-3045

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신 MRI 장비 도입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병원장 오상훈)은 지난 12일 최신 MRI 장비를 도입해 오픈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최신 MRI 장비는 지멘스사의 마그네톰 스카이라(MAGNETOM Skyra)로서 70㎝의 넓은 출입구와 173㎝라는 짧은 시스템 길이를 가진 환자 친화적인 3테슬라 자기공명영상장치다.

이 장비의 특징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환자를 검사할 수 있으며 폐소공포증 환자나 소아 환자 검사 시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 작아진 마그넷과 혁신적인 기술로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검사를 마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 영상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정혁균기자

이번에 도입된 최신 MRI 장비인 지멘스사의 마그네톰 스카이라(MAGNETOM Skyra) /인제대 부산백병원 제공

중소·중견기업 '월드클래스'로 키운다

오늘 시청서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300곳 선정 맞춤형 패키지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4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설명회'가 2월 14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에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선정,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해 국가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및 코트라(KOTRA) 등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 개요, 기업성장전략서 작성 요령, 선정 시 각종 지원 시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 공고일 현재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단 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R&D)투자 비율이 평균 2%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R&D 개발 최고 75억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마케팅 지원(KOTRA 등), 연구인력 지원,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컨설팅 지원 등 강력한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현재 전국 총 100개사가 선정됐으며, 부산은 지난 2013년 월드클래스 기업 컨설팅을 지원받은 스틸플라워(주), (주)오토닉스, 리노공업(주) 등 3개사가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해마다 50개사 정도로 선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 기업들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시는 부산 기업을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 기업을 R&D 지식기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혁균기자 jhk@metrobusan.co.kr

15억짜리 티아라 13일 오전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2층 소제 매장에서 여성들이 시가 15억원 상당의 티아라를 구경하고 있다. 이 티아라에는 꽃봉을 모티브로 교차한 다이아몬드 총 422개(38.8캐럿 상당)와 24.4캐럿짜리 가넷 등이 전시돼 있다. /뉴시스

이원로 인제대 총장 첫 수필집 출간

'화이부동' 펴내

심장병 전문의이자 시인인 인제대학교 이원로(사진) 총장이 첫 수필집인 '화이부동-함께 사는 지혜'를 출간했다.

이 총장은 1939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한 후 첫 시집인 '빛과 소리를 넘어'를 시작으로 지난 7월에 출간한 시집 '기적은 어디에나'를 포함해 총 13권의 시집을 내고 다양한 시작(詩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번 수필집은 "논어에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로 기록돼 있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통해 현대사회에도 사람들이 내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과 공의의 신념을 실현코자 하는 갈망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에는 화이부동 꿈나라 승리의 처방 비교의 역순환 특별한 초대 등 5개의 주제로 쓴 40편의 에세이로 저자가 삶 속에서 배우고 깨득한 지혜를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촬지만 굵게 전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수필집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고 자라가는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고자 이 책을 펴냈다"며 "화이부동의 정신이 독자들 가슴 깊이 전달돼 공감과 동경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책은 '유니티 안 버라이어티'라는 제목으로 아마존닷컴을 통해 영문판 서적으로, 예스24·북스토어를 통해 e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정혁균기자

"부산, 대도시 중 보건서비스 가장 취약"

한국건강증진재단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보건 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전라남도이며 대도시 가운데는 부산광역시가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최근 발간한 '시·도별 지역보건취약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56.4점을 기록해 보건취약지역 종합 점수가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보건취약지역이란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필요도, 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의 차이 때문에 지역 보건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곳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보건 취약 점수는 지역 낙후성 영역 지표 7개, 보건·의료 취약성 7개 지표에 가중치를 더해 산출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건 취약성이 높다.

지역 유형별 종합 점수 상위 10개 시·군·구를 보면 대도시형(특별시·광역시)에는 부산지역 자치구 5개, 대구 2개, 대전·광주 1개씩 속해 부산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중소도시형(일반시·도농복합시)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농어촌형은 전남·경북지역 소재 군이 5개씩 포함됐다.

한국건강증진재단 김현주 선임연구원은 "전남의 경우 도서지역이 많아 지역 낙후성 영역의 점수가 높았고 재정 자립도도 좋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부산지역 점수가 높은 이유로 "이 지역의 인구 밀도도 높고 지역 주민의 최종 건강 결과를 보여주는 표준화 사망률이 493.6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도시형 평균(396.3)뿐 아니라 전국 평균(423.6)보다도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투협 파생상품교실 개최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지역 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파생결합상품을 이용한 중위험·중수익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최근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에 맞춰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 및 파생결합증권의 유형, 투자 시 유의점, 사후관리 등을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다.

강사로는 탁주태(KDB대우증권) 팀장이 나선다. 수강 신청은 e메일(yykim@kofia.or.kr) 또는 전화(051-867-9747)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올해 영남권 하천 16곳 정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영남지역 국가하천 4곳과 지방하천 12곳 등 16건의 하천 정비사업을 새로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하천 정비사업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동시에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만 1347억원이 투입된다.

부산국토청은 국가하천인 경북 김천 봉산지구 하천 정비사업 36.3㎞ 등 4건에 대해 1009억원을 들여 41.2㎞에 달하는 둑을 보강하고 3459㎡의 하도를 준설할 계획이다.

사업 완공은 2017년 예정이다.

또 경남 창녕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지방하천 12곳 72.8㎞ 구간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1347억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국가하천과 동시 정비에 들어간다.

박성훈 부산국토청 하천계획과장은 "올해 새로 착수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롭고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 하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코스닥
1929.66 (-8.58)	521.82 (+1.19)
금리	**환율**
2.84 (변동없음)	1063.80 (+2.60)

뉴스 & 뉴스

금융위원장의 깍듯한 인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주택거래량 전년비 2배

● 지난달 전국적으로 신고된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배가 넘는 5만9000여 건을 기록했다. 12월 계약된 주택 중 상당수가 1월에 신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면제,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등의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을 집계한 결과 5만8846건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117.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혜택 일몰에 따른 막달 효과가 극대화됐던 작년 12월 9만3158건보다는 36.9% 감소했다.

/박선옥기자

코스닥협 신임 부회장 선임

● 코스닥협회 부회장에 조승판 누리텔레콤 대표와 남광희 케이에이치바텍 대표가 선임됐다. 코스닥협회는 13일 열린 제15기 정기회원총회에서 이치권 신임 부회장을 선출하고 신승영 에이텍 대표 등 9명을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스닥의 재도약'을 목표로 정하고 중점 추진 사업으로 ▲회원사 권익 옹호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 ▲코스닥 기업의 지속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등을 선정했다.

/김현정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당 균 호
사장·편집인 김 위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배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11
1999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606

84조 퇴직연금 시장 쑥쑥 큰다

사업자 운용비 절감 기대…상품 포트폴리오 실적배당형 비중 늘려야

Issue & View 예탁원 '펜션 클리어' 곧 도입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10여 년 만에 80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연금 시장 안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행보가 분주하다. 개별 근로자는 기업이 운용을 대부분 전담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 변화에 둔감하기 쉽지만, 은퇴 후 주머니에 들어오는 노후자금 액수가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이달 말 퇴직연금 전담 부서를 별도로 꾸려 퇴직연금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 정보를 표준·자동화한 중앙 집중 시스템인 '펜션 클리어(Pension Clear) 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07년 2조7000억원에서 2009년 14조원으로 급증하고서 2011년 49조9000억원, 2013년 84조3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15년 100조원, 2020년 200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펜션 클리어 도입으로 각종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운용비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펜션 클리어가 벤치마킹하는 호주 '슈퍼스트림(SuperStream)' 제도는 2010년 당시 호주 정부 주도로 도입되면서 연간 8300억원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 관계자는 "펜션 클리어는 무엇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시중 펀드 시장을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인 예탁원의 펀드넷 네트워크를 퇴직연금까지 확대 적용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인프라 확충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퇴직연금 상품(공적·사적 부문 포함)의 수익률도 향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 퇴직연금 펀드 191개 가운데 주식형 펀드(혼합형 포함)는 28개로 약 15%에 불과했고 80% 이상이 채권형이었다.

반면 운용 성과는 최근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이 1.7%로 2%대의 예금 금리도 밑돈 반면, 주식형 일부는 10% 안팎으로 상위권을 휩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로자의 수급 측면에서 기업들의 확정급여(DB)형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안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 의존도를 낮추고 펀드 등 실적 배당형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돌잔치 예약 취소' 위약금 횡포 너무해

돌잔치 관련 업체들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2013년 접수된 돌잔치 소비자 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거절이 95.6%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147건 중 85.7%는 행사일 전 2개월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을 이유로 연회장 측에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사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하도록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행사 요금의 30~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았다. 특히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업체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국현기자

환경 파괴하는 '팜유 담유 초콜릿' 사지 마세요 —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회에 걷고싶은거리에서 시민이 팜유로 만든 초콜릿과 팜유되지 않은 초콜릿을 비교 테스트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초콜릿에 들어간 팜유는 열대우림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초콜릿 절반 정도가 팜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순이 주부 경제학

세탁소 옷걸이의 3단 변신

세탁소에서 흔히 주는 쇠 옷걸이, 투박하고 볼품없어 눈길도 주지 않았다면 새로운 발견에 주목해보자. 단순히 옷을 걸어놓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운동화 건조대'부터 '구두 수납', '아기 옷걸이'까지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과시한다.

우선 축축한 운동화를 말릴 때 꽤 유용하다. 쇠 옷걸이의 양 끝을 위로 향하게 해서 구부린다. 양끝에 운동화를 한 쪽씩 걸어 말리면 편리하다. 쇠 옷걸이는 자유자재로 폈다 굽혔다 할 수가 있어 신발에 맞는 각도로 조정해 말릴 수 있다.

특히 바람 부는 곳에서 말릴 때 쇠 옷걸이 2개를 걸어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해 겹쳐서 사용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구두를 수납할 때도 좋다. 쇠 옷걸이를 우선 세로로 잡아당긴 다음 Z자 모양으로 구부린다. 이것을 한쪽 구두 속에 넣고 Z자의 양쪽 끝에도 나머지 구두를 걸어준다. 이렇게 하면 공간도 절약돼 구두를 여러 켤레 수납할 수 있다.

러블리한 아기 옷걸이도 만들 수 있다. 일단 옷걸이 양끝을 아기옷걸이 사이즈 정도로 구부려 접는다. 펠트에 옷걸이를 대고 재단한 뒤 펠트 원단 두 겹에 예쁘게 버튼홀 스티치(천 끝면의 가장자리를 휘감쳐 뜨는 바느질 방법)를 해준다. 그 안에 솜을 빵빵하게 넣으면 끝. 파스텔 컬러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면 더욱 앙증맞고 깜찍하다. /김민서기자 mir3@

중국, 미국 제쳤다 최대 무역국 등극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규모에서도 2025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중국 온라인 뉴스 사이트 국제재선은 미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양국의 무역 통계를 근거로 12일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총액이 전년보다 7.6% 증가한 4조1603억 달러(약 4333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의 상품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2% 감소한 3조8200억 달러(약 4167조원)에 그쳤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무역규모가 4년마다 2배씩 성장했다.

중국은 이미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도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추월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7조3000억 달러)는 미국(15조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는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국현기자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때론 상쾌하게~
때론 유쾌하게~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CINE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CINEf FX

맨날 한강만 봐? '멀티 뷰' 아파트 인기

집값 결정하는 조망권…건설사들 자연경관 2~3개 품은 단지 조성 붐

조망권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가 아닌 2~3곳의 다양한 포인트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멀티뷰 아파트가 인기다. 멀티뷰를 갖춘 업지가 흔치 않아 희소가치가 높은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 바다, 강, 공원 등과 같은 자연경관 중 2~3가지 이상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멀티뷰 아파트의 공급이 늘고 있다. 멀티뷰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 흥행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멀티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의 경우 집 안에서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희소성에 따른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한강과 하늘공원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서도 조망 여부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가격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은 삼빈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 '트리마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변북로 바로 앞에 들어서기 때문에 눈앞을 가로막을 고층 건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한강을 비롯해 서울숲, 남산타워 등의 도심까지 한번에 누릴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자랑한다.

경남기업이 내달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 선보일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은 단지 바로 남측에 위치한 지동천이 향후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하천과 공원 멀티뷰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범 단지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걸어서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이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에 분양 예정인 '래미안 용산'은 인근에 2.4㎢ 규모로 조성되는 용산공원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그린 조망을 비롯해 한강 또는 남산 조망까지 가능하다.

대림산업은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2차'분을 분양한다. 올림픽대로를 따라 길게 형성돼 있어 한강뿐만 아니라 남산까지 막힘 없이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도 30%가량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와 서래섬이 가까워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 기대된다.

서한이 이달 말 대구 북구 금호지구 C-1블록에서 공급하는 '칠곡 금호신도시 서한이다음'은 일부 세대에서 금호강과 한강공원 모두 조망 가능하다. 단지 일대가 도덕산을 비롯한 각종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기대된다.

/서승희기자 ssh8220@metroseoul.co.kr

한-호주 FTA 이르면 내년 발효

가서명…車·가전 수혜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은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포도주, 아몬드, 원어 등에 물리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호주산 제품의 가격 인하와 시장 공략 확대가 예상된다. 호주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애덤스 차관보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공동 선언문에서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하고 두 나라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빨리 조속히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국회 비준을 차질 없이 받으면 2015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교역 품목(품목 수 기준 99.8%,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품목 수 94.3%, 수입액 94.6%)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송주열기자

우태희 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애덤스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한상의 '40인 정책자문단' 출범…기분 좋은 박용만 회장 박용만(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자문단 출범식 시작 전 참석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자문단은 사회 다방면의 의견을 듣고 경제계 목소리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경제·기업 정책·노동·환경·자유무역협정(FTA) 등 총 7개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동결…9개월 연속 연 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9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9개월 연속 동결을 유지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경제권의 시장 불안 등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을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99% 이상은 2월 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문기기자

보험사기땐 계약 해지·가입 금지된다

금감원, 보험사에 요청 공문

앞으로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가입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자 계약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에게 협조 공문을 하달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사고조사전담팀인 SIU담당 부사장, 계약관리담당 부서장, 계약인수담당 부서장, 상근감사에게 전달된 문서에서 금감원은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실태 조사 결과 여전히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경력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험을 받아주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후 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사기자에 대한 보험 인수를 제한하라는 금감원의 구두 언급은 있었으나 공문을 통해 금지 요청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보험사기계약 해지업무 처리절차'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기자의 신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 대상 보험 종목 및 인수 제한 사항을 반영한 신계약 인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기 경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 보험사에 표준약관 개정 이후인 지난 2010년 4월 1일 이후 보험사기자로 적발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보험을 해지하라고 지시했다. /박상현기자 pls@

작년 은행 순이익 4조 '2012년의 절반'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원으로 2012년 8조7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이익의 축소와 함께 부실 기업과 관련된 대손비용의 증가가 이익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다.

한편 지난해 분기별 당기순이익은 3분기까지 9000억~1조700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1000억원의 적자로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이 상당히 고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총자산순이익률(ROA)도 0.22%로서 전년 0.47% 대비 0.25%포인트 하락했다. /박상현기자

1위 vs 3위 '보조금 폭로전'

SKT "온라인서 지능적 편법 올빼미 영업"
LG유플 "100만원이 고무줄? 호갱님 양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는 SK텔레콤의 자존심이다. 1위 사업자로서 시장 안정화에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SK텔레콤 관계자

"이제 시작이다. 만년 3위로부터 탈피하고, 경쟁사와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감을 알렸다. LTE 시장 1위는 우리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새해 벽두부터 SK텔레콤의 '자존심'과 LG유플러스의 '자신감'이 부딪쳐 이동통신 시장에 파란을 부르고 있다. 정부가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이미 시장은 정부의 통제력마저 상실된 상태다.

연초부터 시작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입자 빼앗기 경쟁은 13일에도 이어져 폭로전 양상마저 띠고 있다. SK텔레콤은 13일 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에도 또다시 온라인에서 단독 올빼미 보조금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네이버 폐쇄몰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을 활용해 규제 기관의 심의를 최대한 피하는 지능적 변칙 영업을 펼친다는 설명이다. 실제 12일 밤 온라인 번호이동 시장에서는 '옵티머스 노트2'가 할부원금 4만원, '갤럭시S4 LTE A'가 할부원금 7만원에 판매되는 등 90만~100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통화 품질 광고 대규모 등과 잡에 든 열악한 상품력을 고객도 인지해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주력을 막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이런 상황에서도 LG유플러스가 연일 경쟁사를 비난하는 등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를 빼앗으려는 LG유플러스와 기존 고객을 지키겠다는 우리와 비교하면 보조금 전쟁의 촉발자가 누구인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무선수익 대비 판매수수료 비중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도 이날 'SKT 종잡을 수 없는 보조금 정책, 호갱님 양산'이라는 자극적인 자료를 내고 SK텔레콤 공격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불과 이틀 전인 2·11 대란에 1인당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이 하루만에 같은 모델에 대해 보조금을 100만원 줄였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주말 800억원을 쏟아부으며 하루 만에 6000여 명의 가입자 순증을 달성한 후 12일 갤럭시S4 LTE-A에 40만원대 중반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한 발 더 나아가 SK텔레콤의 올해 투자가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적은 2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는 KT는 물론 LG유플러스의 2조2000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박상훈기자 lsat@metroseoul.co.kr

디지털 칼로리 매니저 '핏비트' 착용하세요 13일 서울 홍콩리스 해두포진에서 모델들이 디지털 칼로리 매니저 '핏비트(Fitbit)'를 선보이고 있다. 핏비트는 손목이나 옷에 착용하면 칼로리 소모량, 걸음 수, 이동 거리, 활동적 시간 등을 측정해주고 매일 활동량과 수면 패턴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홍콩리스 제공

헬로모바일 새 요금제 한국영화·뮤페 공짜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서비스 헬로모바일이 '한국영화 무제한 요금제'와 '뮤직페스타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시점부터 12개월간 전국 CGV 일반관(청담씨네시티점, 여의도점 제외)에서 한국 영화를 무제한 볼 수 있는 한국영화무제한 요금제는 유심(USIM) 변경만으로도 가입 가능해 단말기 교체에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 가입 12개월 후부터는 기본료가 50% 할인된다.

뮤직페스타 요금제의 경우 매월 엠넷(Mnet) 스트리밍을 통해 모든 장르의 음악을 무료로 즐기면서 국내 최대 뮤직 페스티벌 티켓(1인당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5월), 레인보우 아일랜드(6월), 언싱크라 락 페스티벌(7월), 슈퍼소닉 2014(8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8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10월) 중 원하는 행사의 입장 날짜만 선택하면 된다. /머지원기자 | y4453@

'고래 싸움'에 웃는 알뜰폰

'보조금 경쟁' 이통3사서 월평균 4만5000명 이동

최근 계속되는 이동통신 3사의 싸움에 알뜰폰 업계는 살며시 뒤에서 미소만 짓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 3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경쟁사 가입자 뺏기에 주력하며 다퉈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순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은 1만395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통 3사를 살펴보면 LG유플러스만 가입자 9432명의 순증을 기록했을 뿐 SK텔레콤은 3069명, KT가 1만7313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알뜰폰은 지난해 1월부터 꾸준한 가입자 순증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번호이동 시장에서만 54만8470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월평균 4만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온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의 우체국 위탁판매를 지원하며 성장세가 이어졌다. 올해에도 알뜰폰은 전국 2100여 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위탁 판매를 시작하는 등 유통망 확대에 나서면서 가입자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업계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알뜰폰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250만 명 수준.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도 5%까지 상승했다. 올해 유통망 확대와 이통 3사의 영업정지 등이 이뤄질 경우 반사이익을 통해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를 450만~500만 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이 최대 목적"이라며 "올해에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과 유통판로 개척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지원기자 | y4453@

"ICT 민생법안 통과를"

"민생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민생 7개 법인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컴퓨팅 솔루션 개발사 틸론의 최백준 대표는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관련 140개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건에 불과하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의 생계 안정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관련 7개 민생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CT대연합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관련 소비자단체·협회·학회·포럼·산업계 등 뜻을 같이 하는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운기자 | y0489@

이상화 응원하는 박태환 패션 광고 실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 12일 새벽부터 이상화 선수의 실제 경기 영상과 박태환 등 갤럭시 유천단의 응원 모습이 담긴 리얼 타임 패션(Real Time Faction) 광고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제공

고졸 채용 더 넓어진 문

작년보다 더 뽑겠단 기업 덜 뽑겠단 기업의 5배나

채용 시장 전반에 걸쳐 한파가 매서운 가운데 고졸 채용 시장만큼은 온기가 돌고 있어 눈길을 끈다.

1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고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50.2%가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채용 예정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 예정(23.1%)'이라는 응답이 '감소 예정(4.6%)'보다 5배나 많았다.

고졸자 채용을 진행하려는 이유로는 '업무 능력과 학력은 관계없어서'(77.8%·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학 지식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라서'(26.9%), '이직률이 낮고 애사심은 높은 것 같아서'(13.9%),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8.3%) 등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고졸 채용 시기는 상반기가 83.3%로 압도적이었다. 채용 절차로는 '별도의 고졸자 채용 전형'(17.6%)보다는 주로 '열린 채용'(82.4%)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이 4배가 넘었다.

채용 예정 분야는 제조·생산(41.7%, 복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업 관리(22.2%), 서비스(15.7%), 기타(10.2%), 재무·회계(9.3%), IT·정보통신(5.3%) 등이 뒤를 이었다.

고졸 신입사원 초봉(인센티브 제외, 기본급여 포함)은 평균 190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87% 수준이다. /서규혜기자 kth@

구직자들 "스펙초월 채용, 부담 가중"

스펙 초월 채용 때문에 오히려 취업 부담은 늘었다.

최근 구직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포트폴리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웰던투와 함께 대학생 구직자 337명을 대상으로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스펙 초월 채용 때문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취업 부담이 가중된 이유로는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나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서'(32.7%), '기업이 원하는 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24.5%)를 꼽은 구직자가 절반을 넘어 스펙 초월 채용 준비에 혼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규혜기자 kth@

SK건설 쿠웨이트 누적 수주액 70억 달러 눈앞

SK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쿠웨이트에서 누적 수주액 7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SK건설은 지난 12일 GS건설, 일본 JGC와 공동으로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CFP) 미나 알 아흐마디(MAA) 정유플랜트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현재까지 쿠웨이트 누적 수주액이 68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SK건설은 지난 1994년 처음 쿠웨이트에 진출, 2년 뒤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연료가스 탈황시설'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MAA 플랜트와 20년간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심원섭 SK건설 쿠웨이트 지사장은 "20년 넘게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NPC) 등과 쌓아온 인맥 인연과 정유플랜트의 다양한 공정 수행으로 인정받은 기술력, 신뢰를 바탕으로 쿠웨이트 최강자로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온라인 게임, 살아있네!

엔씨 작년 영업이익 36% 증가 '서프라이즈'… 넥슨도 7% 늘어

국내 메이저 게임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주목할 점은 이들 기업이 MMORPG와 같은 온라인게임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모바일게임이 아닌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온라인게임에서 재미를 봤다.

엔씨소프트는 13일 지난해 매출 7567억원, 영업이익 2052억원, 당기순이익 15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 부문에서 연간 최대를 마크함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증가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 역시 이날 지난해 '커리어하이'를 다시 썼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3% 성장한 1조6386억원, 영업이익은 7% 증가한 5349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와 넥슨이 나란히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리니지',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스테디셀러의 활약 덕이다.

엔씨의 경우 리니지 2879억원, 리니지2 571억원, 아이온 958억원, 블레이드&소울 698억원, 길드워2 1233억원 등 기존의 효자 온라인게임이 여전히 위력을 나타냈다.

넥슨은 게임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던파'가 꾸준히 중국 시장에서 달러박스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모바일게임 부문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온라인게임이 여전히 캐시카우로 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모바일게임을 주력으로 내세운 적지 않은 기업은 볼륨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속을 제대로 차리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등은 매출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는 되레 뒷걸음질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큰 돈을 벌지 못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은 개발 리스크가 작은 대신 앱 장터 등의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아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반면 거액의 개발비가 드는 온라인게임은 유통 비용이 낮아 뭉칫돈을 안겨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metroseoul.co.kr

캐논 '파워샷 G1 X Mark II' 출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DSLR 카메라에 버금가는 화질을 선사하는 플래그십 카메라 '파워샷 G1 X Mark II'를 포함한 콤팩트 카메라 5종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경향하우징페어에 일본산 목재 구경갈까

19일~23일 킨텍스 행사 제트로 통해 15기업 참가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급 종합건축건본시인 '제29회 경향하우징페어2014(KH Fair 2014)'에 일본관을 설치한다.

제트로를 통한 일본 기업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8개사 2개 단체(총 15개사)의 목재 관련 사업자가 판로 확대를 목표로 고품질의 일본산 삼나무·편백나무 등의 상품을 공개한다.

일본은 국토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500만ha가 삼림이며 그중 약 40%가 인공림으로 이뤄졌다. 현재 상당수의 인공림이 성숙기에 들어섰지만 일본 목재 시장의 수요 축소가 예상돼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을 고려하는 목재 관련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목재 자급률은 약 20%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트로는 최근 환율 등락 및 외국산 목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 목재의 우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건본시 참가를 통한 수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유 종이자 축적량이 풍부한 편백나무(히노키)의 경우 한국에서 주택에 많이 사용돼 인기가 높은 데다 특유의 향기를 이용한 심신 안정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건본시 참가 기업 15개사 중 14곳이 편백나무를 선보인다.

시즈오카현에서는 우드와이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주택용부재), 덴류TS 드라이시스템 협동조합(덴류 삼나무·편백나무 제재품, 저비용·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하우스), 오카야마현에서는 인노쇼 임업 주식회사(편백나무 구조재·내장재·계단재·널빤지), 주식회사 우디 요네다(편백나무 문·의자), 에오미 제재 주식회사(편백나무 벽재), 고바야시 제재 주식회사(편백나무 기둥), 소잔 임업 주식회사(편백나무 베개, 편백나무 칩 등)가 전시한다. /박선옥기자

"신약 개발이 살 길"… 제약사 임상시험 ↑

1년 사이 9.1% 증가… 연구·개발 지속적 확대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임상시험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은 2012년 208건에서 2013년 227건으로 9.1%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은 2010년(140건)부터 시작해 지난 4년간 꾸준히 성장했으며 특히 실제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인 3상 임상시험도 2010년 31건에서 2013년 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개발하는 대신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개량 신약 등의 신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R&D를 확대해 이런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글로벌 제약사가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은 2012년 대비 14% 감소한 248건이 승인됐다. 국제적 경기 침체 등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R&D 비용을 줄이고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집중 투자해 임상시험 건수가 감소한 것이다.

임상시험이 승인된 의약품을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종양(157건) ▲심혈관계(80건) ▲내분비계(51건) ▲중추신경계(46건) 순으로 많았으며 제제별로는 합성 의약품이 72%, 바이오의약품 25%, 생약(한약) 제제 3% 순이었다.

또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는 종양(101건)과 심혈관계(20건), 내분비계(19건) 임상시험을 많이 진행했으며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은 심혈관계(56건)와 내분비계(30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임상시험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글로벌 제약사와 R&D 수탁 전문기업(CRO)은 각각 한국노바티스(28건)와 퀸타일즈 트랜스내셔널코리아(25건)였고 국내 제약사의 경우는 일동제약(15건), 종근당(14건), 한미약품(12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2012년(670건)과 비교해 약 9.4% 감소한 총 607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됐으며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는 2012년 172건에서 2013년 132건으로 20% 이상 급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여성 리디자인 토크콘서트 열려 네트를랜도너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 등이 주최하는 '여성을 위한 리디자인 토크콘서트 나우(NOW)'가 최근 서울 미트 서교호텔 브이룸에서 열렸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여성에게 새로운 신호를 주는 토크콘서트(New Days on to Women)라는 콘셉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감미로운 노래가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콘서트는 오는 17일과 19일 도봉구와 동작구에서도 진행된다. /사진제공=도넥 제공

장 운동 개선으로 만성변비 싹~

시크릿 노트

새 패러다임 치료제 '레졸로'

고치지 못하는 병, 그렇다. 불치병이다. 아직까지 많은 불치병이 있지만 현대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있어 진정한 불치병이 하나 있다. 바로 만성 변비다.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만성 변비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의 변비 환자가 약국에서 판매되는 변비약에 의존하고 있지만 변비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만성 변비 환자들은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여겨 변비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한 증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을 비롯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호소하기도 한다. 불치병만큼 힘들고 위험한 병인 것이다.

변비는 일생 동안 누구나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이런 변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하거나 대변이 딱딱하게 굳는 경우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이면서 배변 시 잔변감을 느끼는 경우 등의 증상이 있으면 만성 변비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하는 변비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확실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만성 변비 환자를 위한 구세주가 등장했다. 바로 한국얀센에서 출시된 만성 변비 치료제 '레졸로'가 새로운 솔루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레졸로는 다른 치료제와 다르게 '장운동' 개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성 변비에 접근한 치료제다. 기존 변비약이 장 안에서 변을 부드럽게 하거나 장의 벽을 억지로 자극해 배변 활동을 유도했다면 레졸로는 장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로토닌 4형(5-HT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프루칼로프라이드(prucalopride)라는 성분으로 장의 수축 이완 작용을 촉진했다. 이런 작용을 통해 둔화된 장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개선시키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 얀센은 모든 타입의 만성 변비에서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약 2년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복용 첫날부터 효과를 보는 환자는 물론 배변 횟수 및 만족도 측면에서 충분한 개선 효과가 있었고 레졸로가 장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더불어 기존 변비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만성 변비와 동반되는 두통,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까지 함께 개선됐다.

그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만성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레졸로가 현대인의 불치병 중 하나를 완전히 치료해주길 기대한다.

/황재용기자

"시장 실거래가제 폐지하라"

제약협회 진정서 제출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 구매 인센티브제)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과 함께 단체장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 공급 강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특히 지난 1일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다수의 병원이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은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 4월 또는 6월까지인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돼 결국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용기자

뉴스 & 뉴스

'라이징 스타 시리즈 Ⅱ' 개최

● 현대약품이 클래식계의 신진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아트엠콘서트 '라이징스타 시리즈Ⅱ'를 오는 15일 서울 방배동 유중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아트엠콘서트는 현대약품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촉망받는 클래식 뮤지션을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 주인공은 '포스트 사라 장'으로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양이며 이양은 지난해 모스크바 오이스트라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주니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의·약학 발전 장학금 등 전달

● 한독제석재단이 최근 '제7회 한독제석재단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의·약학 분야 재학생 11명과 교수 3명에게 약 1억6000만원의 장학금과 연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독제석재단은 한독과 창업주 김신권 명예회장이 출연한 사회공익법인으로 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 수여,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빛의 소리 나눔 콘서트' 22일

● 의사 오케스트라 MPO가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한미약품 후원으로 '제2회 빛의 소리 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에서는 MPO의 공연과 MPO와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하트체임버의 이상재 단장,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강혜정씨의 협동 무대가 펼쳐진다. MPO와 한미약품은 이번 공연에서 '빛의소리희망기금'을 조성해 장애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위트 넘치넥 재밌슨…기업 페북 맞아?

상호 공감형 넥슨 페이스북 페이지 팬수 10만 돌파 화제

모든 다섯 달 만에 페이지 팬 수 10만 명을 돌파해 유명해진 기업 페이스북이 있다. 주인공은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이다.

국내 기업 페이스북 데이터 분석 전문 페이지 '빅풋9'에 따르면 넥슨 페이스북 페이지의 일일 순방문자수(DAU) 순위는 지난 7일 기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팬 수 대비 높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일방적 메시지 전달이 아닌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돋보이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보상을 제공하며 '좋아요' 및 '공유하기' 클릭을 유도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이벤트를 거의 진행하지 않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머무르는 '놀이 공간'으로 변신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상을 파고든다

첫눈, 시험, 직장 상사, 야근 그리고 불금(불타는 금요일)까지. 넥슨 페이스북 페이지에 활용되는 소재는 게임만이 아니다.

유저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재료에 유머와 위트를 가미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문하기,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등 유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실제 모태솔로 유저의 사연을 게재해 재미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무실에서 있을 법한 소재로 직장 상사를 거침없이 등장시키는 등 기업 페이스북에 통용되는 소재의 편견을 깼다.

겨울 시즌에는 '넥슨의 연애 비법'을 주제로 한 영상이 인기를 얻었다.

◆ '안녕하세' '출근 잘했슨' … 일명 넥슨체

넥슨은 지난해 7월 이른바 '넥슨체'로 통하는 언어를 도입했다. 어법에 맞지는 않지만 대화에 '~넥' '~슨'을 붙여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 아이템과 넥슨 캐시로 '좋아요'를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넥슨체로 댓글이 쭉을 이었다.

◆기업 문화 전달 창구

넥슨의 작은책방 설립, 푸르메재단 어린이 병원 건립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게시글은 나눔이 있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좋은 디딤돌이 됐다.

특히 어린이병원 건립 후원은 SNS 이용자들의 '좋아요' 참여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유저들도 사회공헌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임과 일 많이 하넥', '꼭 취업하고 싶슨'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늘면서 페북 페이지는 '게임 만드는 회사'를 넘어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Happy Valentine's Day

게임 '밸런타인 행사' 유저 향한 프러포즈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게임업계가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다.

◆블소, 한정판 의상판매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소울'에서 밸런타인데이 특별 의상을 다음달 5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리니지'는 19일까지 마을에 등장하는 '고독한 남자', '외로운 남자', '쓸쓸한 남자' 캐릭터를 처치하면 '시니어의 순정' 아이템을 증정한다. '아이온'에서는 게임 속 '케미르의 상점'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밸런타인데이 기념 복장과 무기를 선물한다.

◆엘소드, 액세서리 증정 행사

넥슨의 '엘소드'는 '사랑을 고백하세요' 임무를 완수하는 여성 캐릭터에게 한정 액세서리 '사랑의 초콜릿'을 27일까지 지급한다. 솔로 이용자들이 같은 기간 매일 10분 이상 접속하면 '폭발하는 울분의 수정구' 한정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마비노기'에서는 26일까지 '교역 상인 임프'에게 '카카오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다주는 미션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스윗 초코 응모하기'에 참여한 이용자 중 50명에게 수제 초콜릿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테일즈런너, 초콜릿 완성 미션

아프리카TV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액션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 최고의 초콜릿을 만들어라'를 26일까지 진행한다. 밸런타인데이 미션에 참여한 이용자는 게임 속 카카오를 모아 초콜릿으로 완성할 수 있다. 최고 품질의 초콜릿을 20개 이상 만들 경우 한정판 엠블렘 '초콜릿 명장'을 받는다.

/장성희기자 @[illegible]

태극전사 쉬는 틈 짜릿하게 게임 한판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업계 다양한 행사로 손짓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게임업계의 올림픽 이벤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기업들은 소치 올림픽이 끝나는 23일까지 다양한 겨울 행사를 진행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소치올림픽 기간 동안 '에오스'에 접속해 1시간 이상 이용한 전원에게 출석 도장을 만들어준다. 우리나라 경기가 열리는 날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외식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을 4개 이상 획득할 경우에는 올림픽 기간 중 7일 이상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신규 의상 '트레이닝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한빛소프트의 'MVP 베이스볼 온라인'은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템을 증정하는 '함께해요! 대한민국' 이벤트를 폐막식까지 실시한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면 '골드카드 영업권'을 증정하며 은메달은 '스페셜 랜덤박스', 동메달은 '일반 랜덤박스'가 지급된다.

엑토즈소프트의 '드래곤네스트'도 23일까지 올림픽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나라가 메달을 획득하면 메달 등급에 따라 아이템 '메달릴리'를 각각 100개, 50개, 20개씩 지급한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정오 우리나라 종합순위 기준으로 몬스터 사냥 및 스테이지 경험치와 아이템 드랍률 추가 혜택을 준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게임 이용률이 하락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서 "시차가 큰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경기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이들을 잡기 위한 이벤트가 풍성하게 열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롤, 진화된 챔피언 '제라스' 공개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업데이트된 챔피언과 신규 스킨을 공개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자사가 개발·배급하는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새롭게 진화된 챔피언과 신규 스킨을 13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챔피언 '제라스'는 '암살자형 마법사'의 특징에 어울리도록 모든 기능이 바뀌었다. 효과, 음성 대사와 애니메이션까지 기존과 달라진 모습으로 탈바꿈돼 색다른 모습을 선사한다.

신규 스킨 '용광로 레넥톤'은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던 도살자를 형상화한 챔피언 스킨이다. 레넥톤은 상단 공격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장성희기자

신규 스킨 '용광로 레넥톤' 이미지 /라이엇게임즈 제공

꽃피부 '굿 나잇'이 필요해

밤 10시~새벽 2시 '재생시간' 스킨케어 돕는 제품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다. 하루의 바쁜 일정과 유해한 외부 환경에 노출돼 심신이 모두 영향이 됐다면 잠자는 사이 지친 피부와 마음을 잘 다독여 줄 '굿 나잇 케어'에 관심을 기져야 한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밤에 잠을 잘 때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하루 동안 고생한 피부가 재생돼 회복될 수 있는 시간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

먼저 얼굴은 겨울철 건조함과 자극을 주는 칼바람,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등의 외부 유해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곳이다.

토니모리 '플로리아 ... 한 겹 피니셔'의 경우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 세안 시 하루동안 쌓인 각질과 노폐물이 피부를 한 겹 벗겨내듯 떨어져 나가면서 새 피부로 턴 오버가 가능하다.

나이트 크림의 유분기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걱정이었다면 가볍게 피부에 밀착돼 잠든 사이 집중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줄리엣 '허벌 리커버리 나이트 크림'이 효과적이다. 모스빈과 아프리카 자작나무 카카두 플럼 추출물 등의 내추럴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가꿔 건강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불면증에 효과적인 제품도 있다. 아로마티카 '아로마테라피 블루-굿 슬립'은 100% 식물성 천연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오일 제품으로 라벤더, 캐모마일 등 천연 에센셜 오일의 향이 잠 못 드는 불안한 심신을 달래고 안정시켜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준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렘(REM) 수면'은 적절하게 이뤄질 경우 어린이 우울감이 줄어들고,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피로 해소에 좋은 영양제로 알려진 비타민 B는 두뇌 화학물질 세로토닌을 만들어내 편안한 렘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정영일기자 metroseoul.co.kr

홈플러스 신학기엔 선플쓰기 캠페인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인 홈플러스 e파란재단과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클린앤드클리어는 13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들에게 선한 리플 쓰기를 독려하기 위해 '신학기엔 응원의 메시지를 선플쓰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판매된 클린앤드클리어 제품 수익금의 3%가 선플운동본부에 기부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사용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제공

'新 소비VIP' 임산부 모시기

뷰티·식음료·항공사 등 전용 상품 출시 잇따라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박은지(34)씨는 요즘만 같다면 열 번이고 임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미·잡티 없는 뽀얀 얼굴에 임신을 하고 난 후 더 예뻐졌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

최근에는 씨처럼 임신과 출산기를 어렵다고 여유롭게 보내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부 전용 상품의 인기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했지만 상반기 임신·출산 진료비 지출액은 1176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810억원에 비해 45.1%나 증가했다.

경제력을 갖춘 임산부들이 임신과 출산 관련한 비용에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유통업계도 임산부 고객을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임산부 전용 스킨케어 쏭레브(SonReve)는 임산부의 피부와 태아의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태아의 건강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벤, 미네랄 오일,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을 배제한 쏭레브는 임신중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준다.

...니 제공

임산부와 태아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채우고 저칼로리로 용매는 지켜주는 임산부 전용 음료도 있다.

매일유업의 '엑솔루트 맘스미일'은 DHA-칼슘·철분·비타민 C 등의 영양소에 바나나 반 개 칼로리(1회 섭취량 20g 기준, 60kcal)로 임신·출산 때문에 불어난 체중 고민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에 탑승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내 임산부용 편의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용품은 오가닉 블디베리 풋 크림, 오가닉 피부 케어 크림, 오가닉 코튼 수면 양말, 임산부용 위덧 판 한 지, 임산부용 가방고리로 구성됐다.

/박지원기자

노화 막는 호두·잣…저칼로리 오곡밥

대보름 음식 '몸에 보약'

밸런타인데이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14일은 우리나라 대표적 세시 명절 중 하나인 정월 대보름이기도 하다. 대보름에는 '내 더위 사가라'라는 말을 건네기도 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며 부럼을 깨물기도 한다. 또 한 해 운이 좋아야 한다고 이웃 간에 오곡밥을 나눠 먹는다. 이 모두 건강과 평안을 위한 것으로 실제 대보름에 먹는 부럼과 오곡밥은 최고의 건강식 중 하나다.

부럼으로 많이 먹는 땅콩·호두·잣 등은 견과류에 속한다. 이들에는 올레인산·리놀레산 등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신경 세포를 성장시켜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중·노년층 치매 예방에 노움을 준다.

특히 마그네슘을 다량 함유한 호두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며 호두의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다량의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해로운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동시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유지시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식품 중 하나다.

찹쌀·조·수수·팥·콩을 섞어 만든 오곡밥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영양식으로 안기가 많다. 게다가 쌀밥에 비해 열량이 20% 정도 적고 칼슘과 철은 2.5배 가량 많이 함유하고 있다.

특히 따뜻한 성질이 찹쌀과 수수는 소화기능을 돕고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는 효과가 있다. 평소 위장 기능이 떨어져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좋으며 조 역시 위의 열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곡밥과 함께 밥상에 모르는 나물 역시 건강에 좋다. 생채의 활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공급해주는 주요 공급원으로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황재용기자 hsoul...

동탄성심병원·김안과병원 등 건강강좌

대학병원들이 봄을 맞이해 다양한 건강강좌를 준비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오는 19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만성 호흡기질환' 무료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이 병원 명곡홀에서 '해피아이(eye)'는 건강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에서 한정열 교수는 망막혈관폐쇄의 원인과 관리법 등을 강의한다.

또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오는 21일 '100세 건강 내 등 사랑하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마련해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도루코리빙 '밀리터리 어택' 군부대에 페이스카트 전달

면도기 업체 도루코리빙은 장병들의 보다 즐거운 병영 생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밀리터리 어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육군 제26사단 포병대대와 해병대 2사단에 면도·뷰티 밤한용품들로 구성된 페이스카트 1000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밀리터리 어택'에서 회사 측은 특시한 자림의 미녀들이 직접 '밸런타인데이 기념 초콜릿 세트'를 전달하고 함께 포토타임을 가져, 이벤트 장소에 장병들이 대거 몰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日 특유 선물포장 한자리에

동대문디자인 갤러리에서 '오미아게 디자인전' 개막

일본인들의 선물 문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갤러리에서 일본의 '오미아게(토산품) 창작 패키지 디자인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KPDA)와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JPDA)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에는 일본 47개 도도부현의 토산품, 향토 요리, 명소, 유적지, 전통 행사 등을 소재로 한 오미아게 패키지 디자인 100여 점이 전시된다.

오미아게는 여행 혹은 출장에서 돌아올 때 일본인들이 다른 이들 위해 준비하는 소박한 선물을 일컫는 일로 일본의 오미아게 문화는 일본 각 지역의 특산을 관련 상품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서울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일본 특유의 오미아게 문화와 함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오미아게 포장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오프닝에는 이순자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과 시시다 후미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 이사장 등 다수의 디자인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뉴스 & 뉴스

농심, 말레이시아서 식음료 베스트 브랜드상 수상

농심은 13일 말레이시아 아시아 태평양 브랜드 재단(APBF)이 주관하는 브랜드 평가 대회에서 업계 최초로 식음료 부문 베스트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PBF는 말레이시아 전 총리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박사가 2004년 설립한 재단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브랜드 평가사로 손꼽힌다.

이번 대회는 말레이시아 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농심은 비상장기업 중 지난해 가장 성공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식품기업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 청하 라벨 변천사 담은 기획팩 출시

롯데주류가 13일부터 과거와 현재의 청하 라벨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청하 4본입 기획팩'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이는 청하 4본입 기획팩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과 후반, 그리고 현재 라벨이 적용된 제품 총 4본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출고가는 5885원이며, 2만 세트 한정 제작됐다.

1986년 출시 후 총 10여 회에 걸쳐 변경된 청하 라벨 중 기존 라벨과 차별성이 크고 당시 인기가 좋았던 시기의 라벨을 엄선해 청하의 30여 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필리핀관광청 "하이옌 복구 지원 감사" 이벤트

필리핀관광청이 슈퍼 태풍 하이옌 피해 복구 3개월을 맞아 서울시청, 명동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감사 카드 나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벤트는 필리핀관광청이 진행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감사 캠페인(Thank You Campaign)'의 일환으로 필리핀 피해 복구 지원과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관광청 전 직원들과 필리핀 유학생 등은 카드 전달과 함께 '프리허그'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마리온 비스코에브론 필리핀관광청 한국지사장은 "지난 태풍으로 필리핀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리핀의 복구와 변화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필리핀관광청 제공

/박지원기자

A형 남친에겐 달콤한 맛

남자친구 혈액형별 맞춤 초콜릿 세트 제안

밸런타인데이에 정성스럽게 만든 초콜릿만으로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남자친구의 혈액형에 따른 맞춤 초콜릿 세트를 준비해보자.

◆섬세하고 부드러운 매력의 A형 남자친구에게 달콤 세트!

다정다감하고 배려가 깊은 A형 남자친구라면 부드러운 가나슈 초콜릿을 선물해 보자. 초콜릿과 생크림을 섞어 부드럽게 녹여드는 가나슈 초콜릿은 기호에 따라 위스키, 브랜디와 같은 술이나 민트, 계피, 후추와 같은 향신료, 또는 레몬, 딸기와 같은 과일들을 부재료로 첨가해도 잘 어울린다. 풍부한 초콜릿의 향미를 지닌 가나슈 초콜릿은 깔끔한 맛의 홍차와 어우러져 최고의 마리아주를 선사한다.

차 전문 브랜드 립톤의 '마일드 실론'은 낭만적이고 순수한 실론티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실론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은 가나슈 초콜릿의 부드러운 풍미를 한층 배가시켜준다.

◆자유롭고 재미난 매력을 지닌 B형 남자친구에게 헌번 세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B형 남자친구,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거침없고 언제나 재미난 것을 추구하는 그에게는 씹히는 맛이 일품인 견과류 초콜릿이 어울린다. 씹히는 견과류 종류에 따라 맛이 다르고, 모양도 제각각인 견과류 초콜릿이라면 단조로운 초콜릿보다 그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다. 여기에 신선한 라임과 알싸한 민트가 어우러진 상큼한 모히토가 어우러진다면 고소한 견과류 초콜릿의 뒷맛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줄 것이다.

프리미엄 럼 브랜드 바카디의 '바카디 클래식 칵테일 모히토'는 소다수와 얼음만 있으면 간단하게 모히토를 만들 수 있다.

◆유쾌하고 활동적인 O형 남자친구에게는 로맨틱 세트!

유쾌·통쾌·상쾌의 활동적이고 남자다운 O형 남자친구에게는 로맨틱한 초콜릿 세트를 선물해 보자. 뜨거운 초콜릿이 흐르는 초콜릿 퐁듀와 일색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준비한 로맨틱한 초콜릿 세트라면 거침없는 그도 한번에 녹아내릴 것이다.

신터로 피노 샤도네이 스푸만테'는 스파클링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들과 달리 드라이한 맛이 특징으로 힘 있는 기포가 매력적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AB형 남자친구에게는 시크 세트!

지분하고 이성적인 AB형 남자친구라면 달달하고 감성적인 것보다는 시크한 매력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좋다.

직접 초콜릿을 만든다면 달달함보다 진한 맛이 매력적인 화이트 초콜릿을 추천한다. 적당한 단맛이 가미된 생초콜릿과 탐앤탐스의 '더치커피' 세트라면 당신의 센스를 이성적인 그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분쇄 원두 위에 10~12시간에 걸쳐 찬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추출하는 더치커피는 진한 화이트 초콜릿과 함께 한층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선보인다.

/조재형기자 jnwe@metroseoul.co.kr

시들지 않는 비누 장미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은 13일 밸런타인·화이트 데이와 졸업·입학 시즌을 앞두고 비누 장미를 선보였다. 비누 장미는 은은한 향을 지니고 향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나중에 비누로 활용 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9송이 한 세트가 1만원이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오도독 견과류, 이젠 후루룩 마셔요

만족 다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견과류가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다.

대보름 아침, 건강을 기원하며 먹었던 부럼과 여기 사용된 견과류의 효과가 부각되면서 먹는 방식 역시 변하고 있다.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조사한 매출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견과류 관련 매출은 1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생으로만 먹던 견과류도 변신을 거듭했다.

정식품은 콩의 영양을 그대로 살린 두유에 견과류인 아몬드와 호두를 넣은 '베지밀 아몬드와 호두 두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 3대 영양소와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D3, 칼슘 400㎎, 식이섬유 1400㎎ 등 균형 잡힌 영양이 들어 있어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없다.

매일유업에서는 최근 요구르트와 견과류가 함께 들어있는 '멜스앤 그래놀라 요거밀'을 출시했다. 분말 타입의 요구르트에 견과류와 견과일을 함께 첨가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신개념 영양 간식이다.

곡물 가공 전문업체 그레인메트리의 '고소한 아침곡물'은 현미와 흑미 등 국산 곡물에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넣어 견과류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코믹 연애극;
연극
작업의 정석
2013년 9월 5일 OPEN 코엑스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문의| 1588-5212
토요일 심야
전석1만원!
(20시 공연)
이제, 강남 코엑스에서
진정한 선수들의 밀당승부가 시작된다!

관절질환 및 인대질환 5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치료법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유명 남자 영화배우 C씨는 왼쪽 팔꿈치 및 무릎 인대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맞았으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자주 재발해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부담스럽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최현우 원장은 C씨의 상태를 우측 주관절 내측 긴조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진단하고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에서만 시행하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행했다.

또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해 특수 인대 치료 주사를 병행했으며 그 결과 C씨의 상태는 호전됐다.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은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조이스병원

이처럼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에서 시행하는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또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의 인대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하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치료 후 C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 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 치료와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다. 현재 C씨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병원으로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은 환자들의 근본적인 치료와 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질환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선행한다. 이후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해 치료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 및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합리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4-2200, 여의도점 02-786-2200

/황재용기자

대보름 부럼 잘못 깨물면 오복 중 하나 망가집니다

음식 꼭꼭 씹어먹는 습관 치아건강·치매예방 도움

한 해 동안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깨물던 부럼과 견과류는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하지만 밤, 호두 등 건강을 빌며 깨문 견과류가 오히려 이를 상하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 백상현 원장

부럼과 같은 딱딱한 음식을 잘못 씹으면 이와 잇몸이 상할 수 있는데 견과류를 먹을 때는 항상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잇몸과 잇몸뼈를 튼튼하게 하고 씹는 근육에도 자극을 줘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꼭꼭 씹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꼭꼭 씹어 먹는 식습관만큼이나 양치질도 중요하다. 양치는 어금니 안쪽과 바깥쪽을 부드럽게 빠진시키듯 닦아주고, 앞니의 경우 바깥쪽은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치아를 쓸어내리듯 회전시켜야 한다.

백상현 에스플란트치과병원장은 "음식을 씹어 먹는 식습관이 치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견과류는 물론이고 모든 음식을 최소 30번 정도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한다"며 "아무리 피곤해도 식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맹물이나 구강청정제로 입을 헹궈야 치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깨 통증 치료엔 관절내시경 시술 간편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인 어깨는 다른 곳보다 운동량이 많아 각종 관절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다.

더욱이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등 어깨 사용이 많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회전근개파열·충돌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통증이 미세하거나 이를 단순한 어깨 결림, 노화 현상 등으로 치부해 통증을 참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문제는 이처럼 통증을 참고 치료를 미루면 더 큰 질환으로 변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웰튼병원 제공

어깨질환은 제때 치료받으면 약물 주사, 물리 운동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체외충격파와 같이 강한 충격파로 손상된 조직을 자극해 치유를 도모하는 보존적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만약 초기에 병원을 찾지 않아 병을 키운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관절내시경 시술'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관절내시경 시술은 초소형 카메라를 관절 부위 내부로 삽입해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특수 장비로도 발견하기 힘든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부 주변의 손상이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다.

/채신화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산들건강 건강식품 '장엔장' 배변에 도움

배변 고민을 해결해줄 건강식품이 나왔다. 산들건강(sandle.co.kr)은 장(腸)튼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 기능 개선에 효과 있는 '장엔장'을 선보였다.

장엔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 등 49종의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02)778-4568

12일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SM 더 발라드 Vol. 2 조인트 리사이틀'에서 샤이니 종현과 소녀시대 태연이 빼어난 가창력과 하모니를 선보이며 열창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번 앨범에 함께 참여한 엑소 첸, 에프엑스 크리스탈, 슈퍼주니어-M 조미, 장리인(왼쪽부터). /손진영기자 son@

퍼포먼스 빼고 감성 더하고… 진화하는 아이돌

국내 가요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아시아 음악 시장에 새로운 한류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소녀시대 태연, 샤이니 종현, 에프엑스 크리스탈, 엑소 첸, 슈퍼주니어-M 조미, 장리인 등 총 8명의 멤버가 참여한 'SM 더 발라드'를 통해서다. 그동안 SM 소속 뮤지션들은 SMP(SM Music Performance)라는 자체 장르를 만들 정도로 노래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기반한 댄스 음악으로 국내외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 때문에 SM의 소속 뮤지션 보아와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을 떠올리면 격렬한 퍼포먼스와 능수능란한 가창력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이번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담백한 목소리만이다.

◆ 듣는 음악의 즐거움

최근 국내 가요계는 퍼포먼스를 강조한 보여주기식 무대를 구축하는 데 급급했다. 목소리만으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기 힘들어지면서 음악과 안무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SM 더 발라드는 달랐다. 멤버들 저마다의 매력을 선사하면서도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녀시대 태연은 솔로곡 '셋 미 프리'를 통해 새로운 음악성을 선보였다.

여미 OST와 듀엣곡 등으로 소녀시대 활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는 태연은 더욱 달라진 음색으로 외모뿐 아니라 성숙해지고 다양해진 보컬을 확인케 했다.

아시아 시장 새 한류 준비하는 'SM 더 발라드'

소녀시대 태연·샤이니 종현 등 8명 참가

담백한 목소리로 다국적 팬들 귀 사로잡아

"프로젝트 앨범 아닌 브랜드로 만들겠다"

또 샤이니 종현과 부른 '숨소리'에서는 흔치 않은 남녀 듀엣 보컬의 하모니를 새롭게 완성해냈다. 반면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엑소 첸과 장리인이 부른 '숨소리' 중국어 버전은 청아한 느낌을 담았다. 중국어 특유의 발음이 곡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애절함을 극대화했다.

김은아 SM 홍보팀장은 "발라드를 선사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프로젝트로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보컬을 강조했다"며 "단발성이 아닌 가수분 더해갈수록 더욱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 팬 위한 배려

SM의 발라드 프로젝트 SM 더 발라드의 두 번째 앨범 '브리드'는 아시아 팬을 위해 완성됐다. 지난 2010년 선보였던 첫 번째 프로젝트 앨범에 한국어 버전만 담겼다면 이번 앨범에 수록된 총 6곡 중 2곡을 한·중·일 3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했다.

여기에 앨범 활동은 아시아 전역에서 이뤄진다는 특징도 있다. SM 더 발라드는 13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태연과 종현의 '숨소리' 한국어 버전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14일 장리인과 첸이 중국 호남위성TV '2014 호남위성 원소희락회'에서 '숨소리' 중국어 버전을 선보인다. 이는 SM이 국내시장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이저 음악 그룹으로 자리잡기 위해 팬들에 대한 배려가 돋이난다.

◆ 새로운 한류 문화 조짐

그동안 SM은 'SM타운 콘서트-월드투어', 'SM타운 위크' 등 매번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며 전 세계 음악 시장을 개척해왔다. 덕분에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는 1만4000여 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했다. 또 'SM타운 위크'는 약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명실상부 글로벌 콘서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노력은 이번 쇼케이스에서도 빛을 발했다.

지난 12일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려진 'SM 더 발라드 볼륨2 조인트 리사이틀 쇼케이스' 현장은 800여 명의 팬들로 가득 찼다. 팬들의 국적은 다양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SM 관계자는 "SM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에브리싱과 작업스토어 등 3곳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했는데 해외 팬들도 많이 찾아왔다"며 "프로젝트 앨범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sjw@metroseoul.co.kr

소녀시대·2NE1 24일 '빅뱅'… 누가 셀까

같은 날 신곡 출시 '음원 대결' 씨엔블루도 새앨범 들고 컴백

국민적 관심사인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가요계에는 아이돌 음콤픽이 열린다. 새 음반과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어김없이 음반·음원차트와 가요 순위 프로그램 정상을 휩쓰는 톱 그룹들이 자존심을 걸고 이례적으로 같은 날 맞붙는다. 운명의 승부는 올림픽 폐막일인 24일 시작된다.

수년째 최강 걸그룹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소녀시대가 지난해 1월 정규 4집 '아이 갓 어 보이'를 발표한 이후 13개월 만에 네 번째 미니앨범 '미스터 미스터'를 내놓는다.

미국 타임지와 빌보드 등이 주목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한 만큼 앨범에도 세계적 수준의 스태프가 참여한다. 소녀시대는 비욘세, 저스틴 팀버레이크, 크리스 브라운,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세계적인 팝스타와 함께 작업한 미국의 2인조 프로듀싱팀 더 언더독스와 손잡았다. 빌보드가 신곡 발표 소식을 상세히 전한 것도 이례적이다.

2NE1이 걸그룹 '끝판왕' 자리를 놓고 소녀시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3년5개월 만의 새 정규앨범을 소녀시대 새 앨범 발표와 같은 날 출시한다.

정규 2집 '크러시'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 YG엔터테인먼트 사상 최대 비용을 투자하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 2NE1은 한국어로 번안한 일본어 발표곡 외에 나머지 9개의 앨범 수록곡을 모두 신곡으로 채웠다.

대형 기획사 소속 가수들끼리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업계 관례였지만, 이처럼 톱 가수가 같은 날 동시에 컴백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번 대결은 글로벌 음악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음악 외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거듭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양현석 프로듀서는 "올해는 YG의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큰 도박과도 같은 해"라며 "지난 몇 달간 녹음실과 음악 작업실, 대형 안무실 등을 추가로 확대했고 새로운 해외 음악 프로듀서들과 공동 작업을 활발히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2NE1은 올해 YG 1호 가수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컴백한다.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는 13개월 만의 새 앨범인 다섯 번째 미니앨범을 들고 돌아온다. 전곡을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채웠으며 타이틀곡은 리더 정용화가 쓴 '캔트 스톱'이다. 14개국 18개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하며 다진 팀워크와 네 멤버 전원이 드라마에 출연하며 높인 인지도로 팀 전력은 더욱 막강해졌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4일 동시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컴백하는 소녀시대, 씨엔블루, 2NE1(위부터 시계 방향으로)가 소속사의 자존심을 걸고 음반 대결에 돌아왔다.

이동욱·이다해 '호텔킹'으로 8년만에 호흡

배우 이동욱과 이다해가 8년 만에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황금무지개' 후속으로 다음달 29일 첫 방송될 MBC 주말 특별기획 '호텔킹' 출연을 확정지었다. 두 사람은 8년 전 드라마 '마이걸'로 함께 출연한 뒤 다시 남녀 주연으로 만나게 됐다.

이동욱은 '호텔킹'에서 교포 출신의 호텔 씨엘의 총지배인 차재완 역으로 등장한다. 차재완은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성격의 '호텔 괴물'로 불리지만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이다.

호텔 씨엘 회장 이성원의 고명딸이자 호텔 상속녀 이모네 역을 맡은 이다해는 특유의 상큼 발랄한 호텔 상속녀로 연기 변신에 나선다.

'호텔킹'은 국내 유일의 7성급 호텔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속녀와 그녀를 위해 아버지의 철저한 적이 된 총지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살맛납니다' '오늘만 같아라'의 김대진 PD와 '오로라공주' 장준호 PD가 공동 연출을 맡았다.

/탐분문기자

'왕가네' 마지막 촬영 끝낸 오현경 "정말 소중한 시간"

배우 오현경이 '왕가네 식구들' 마지막 촬영 소감을 밝혔다.

12일 촬영을 끝낸 오현경은 "'왕가네 식구들'과 함께한 7개월 동안 값진 깨달음을 얻었다"며 "빛에 진심을 담아야만 진실한 연기를 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깨달음과 뿌듯함, 기쁨과 감사함을 일게 해준 '왕가네 식구들' 배우, 스태프,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왕수박으로 지내온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다"며 "다들 또 다른 출발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한다"고 마지막 촬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청률 50%대 돌파를 눈앞에 둔 '왕가네 식구들'은 오는 16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다. /탐분문기자

손호준 "이번엔 고독남이랍니다"

'태양은 가득히' 한지혜 이복동생 역 맡아…17일 첫 방송

배우 손호준이 고독한 남자로 변신한다.

17일 첫 방송되는 KBS2 새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에 출연하는 손호준은 13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내 안의 외롭고 쓸쓸한 부분을 끄집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달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순박한 전라도 출신 대학생 해태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오른 손호준은 지상파 미니시리즈에 데뷔해 본격적으로 연기 영역 확장에 나선다.

그는 "해태를 위해 내 안에 있는 밝은 면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냈다"며 "이번 드라마에서 맡은 역은 서자의 설움을 지닌 캐릭터로 따뜻한 가정을 가장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인물이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겠다"고 변신을 예고했다.

'태양은 가득히'는 태국에서 벌어진 총기 살인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물론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남자 정세로(윤계상)와 약혼자를 잃은 여자 한영원(한지혜)의 지독한 인연과 치명적인 로맨스를 그린다. 손호준은 한영원의 이복동생 한영준을 연기한다.

함께 출연하는 한지혜는 "한 달 넘도록 대본을 연구하면서 클래식 등 서정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준비했다. 그동안 연기했던 인물들로 인해 이미지가 한 가지로 굳어지는 것을 염려했는데 이번 드라마로 뛰어넘고 싶다"고 말했다.

윤계상은 "실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자다. 복수에 불탄 뜨거운 감정으로 그때그때 감정을 노출시키는 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유순호기자

배우 한지혜, 김영철, 손호준(왼쪽부터)이 13일 오후 가든포동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KBS2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슴뛰는 뮤지컬 '삼총사'

내달 한·일 동시공연 유준상 포함 초연배우·키·박형식 등 스타들 총출동

뮤지컬 '삼총사'가 한국과 일본 무대에 동시에 오른다.

다음달 14~30일 세종문화회관, 다음달 2~15일 일본 도쿄국제포럼 극장에서 공연이 열린다.

이번 동시 공연은 지난 일본 공연의 성공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해 여름 도쿄 분카무라 오차드홀에서 열린 공연이 시작 예매 기간 중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며 '일본 관객은 조용하다'는 편견을 깨고 이례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기세를 몰아 이달 초 성남아트센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성우·유준상·김법래·민영기·엄기준·김성현 등 2009년 초연 배우는 물론 성남아트센터 공연을 흥행작으로 이끈 이건명·김민종·섬민·존케이·키·박형식·송승현·소냐·다나·제은 등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이들은 두 팀으로 나눠져 한국과 일본 공연을 이끈다.

(유)엠뮤지컬아트의 대표이자 이 작품의 프로듀서인 김선미 대표는 "체코 원작이지만 국내 제작진에 의해 90% 이상이 창작된 '삼총사'의 국내와 일본에서의 성공은 이미 검증됐다"면서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최초의 한·일 동시 공연이라는 뮤지컬 역사상 가장 멋진 도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삼총사 / 엠뮤지컬아트 제공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이 원작인 체코 뮤지컬이다. 한국 제작진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9년부터 한국어 버전으로 공연되고 있다. 17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총사가 되길 원하는 시골뜨기 청년 달타냥이 왕실 총사 아토스·포르토스·아라미스를 만나며 겪는 모험과 우정을 그린다. 문의 02)764-7857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PHOTO

김고은 수줍은 뒷태 배우 김고은이 13일 오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몬스터' 제작보고회 포토타임 중 등이 훤히 드러나는 옷차림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가리고 미소를 짓고 있다. 다음달 개봉하는 '몬스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 태수(이민기)와 그에게 동생을 잃은 여자 복순(김고은)의 쫓을 수 없는 추격을 그린 스릴러다. '오싹한 연애'를 연출한 황인호 감독이 제작했다. /[illegible] 뉴시스

겨울 극장가 흥행코드 음악&향수

'음악'과 '향수'가 올겨울 극장가의 새로운 흥행 코드로 떠올랐다.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주제곡 '렛 잇 고'의 선풍적인 인기 속에서 극장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1일에는 800만 관객을 넘어 역대 외화 흥행 3위에 올랐다.

이 같은 흥행의 원동력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환상적인 동화를 화려한 브로드웨이 뮤지컬과의 조합으로 그려내 성인 관객에게도 어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어공주' '라이언 킹' 등 디즈니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성인 관객들의 향수도 자극했다.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순항 중인 '수상한 그녀'(사진)도 젊은 날에 대한 향수와 OST로 감성을 자극한다. 주연배우 심은경이 부르는 1970~80년대 히트곡 '나성에 가면'과 '하얀 나비'는 젊은층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감동과 재미를 배가시켰다.

아카데미 8회, 칸영화제 6회 수상에 빛나는 천재 감독 코엔 형제의 첫 음악영화인 '인사이드 르윈' 역시 개봉 13일 만에 7만 관객을 돌파하며 소규모 개봉 영화로는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빈털터리 무명 뮤지션 르윈의 7일간의 음악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1960년대 라이브 카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은 중년 관객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원스' 이후 감성적인 음악영화를 기다려온 관객층에게 어필했다는 평이다. /[illegible]기자

'러브레터' 인도판 '런치박스' 국내 관객맞이

지난해 열린 제66회 칸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런치박스'(사진)가 4월 10일 국내 관객과 만난다.

두 남녀가 편지로 사랑의 감정을 나누게 되는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인도판이다. 부인이 만든 도시락을 남편 회사에 배달시키는 인도 뭄바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소재로 한 중산층 가정의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점심 도시락에 넣은 편지가 다른 남자에게 배달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천재 자폐증 남자 '칸'의 기적 같은 여정을 담아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내 이름은 칸' 제작진이 또 한번 의기투합했다.

칸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고,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함께 치열한 경합을 벌인 아시아태평양국제영화제에서도 남우조연상과 각본상, 특별공헌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국내 관객에게도 친숙한 '슬럼독 밀리어네어' '라이프 오브 파이'에 출연한 인도의 국민배우 이르판 칸이 남자 주인공을 맡았다.

제공사는 "이미 벨기에·체코·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에서 개봉돼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면서 "국내 개봉에 앞서 미국의 소니 픽처스는 이달 28일 북미 지역에서 배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인생역전' 폴포츠 영화로 나왔다

'원챈스' 내달 13일 개봉

'인생 역전의 아이콘' 폴 포츠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원챈스'(사진)가 다음달 13일 국내 개봉한다.

이 영화는 폴 포츠가 영국의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2007년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 우승을 계기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기까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2013년 토론토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시작으로 시카고국제영화제, 밴버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며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아 국내 개봉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흥행성을 입증한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각본과 기획을 맡았던 저스틴 잭햄이 각본을 담당해 실화를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스크린에 담아냈다. 실제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이었던 음반기획자 사이먼 코웰이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팝 디바 테일러 스위프트가 참여한 주제곡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아우르는 환상적인 풍경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illegible]기자

유아인 주연 '깡철이' 日 상영

유아인 주연 영화 '깡철이'(사진)가 5월 일본에서 개봉한다.

오리콘 뉴스는 '깡철이'가 5월 17일 일본에서 '깡철이 엄마가 준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된다고 13일 전했다. 이 영화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걸오 역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아인이 출연한다는 이유로 현지 팬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아왔다.

부산을 배경으로 뚜렷한 직업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강철(유아인)이 투병 중인 엄마(김해숙)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엮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그렸다. /[illegible]기자

metro Russia

орейцы не обиде на Ана

metro Chile

para armar su

칠레 '프러포즈 스타' 사업가로 변신

최근 칠레 산티아고 도심에서 연인에게 청혼하는 동영상 등 통해 유튜브에 올려 칠레 여심을 뒤흔든 청년 니콜라스 세르다. 그의 동영상 조회 수는 일주일 만에 17만 회를 넘어섰다. 세르다는 자신과 같이 특별한 프러포즈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 전 이벤트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프러포즈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물었다"면서 "나처럼 이색 프러포즈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metro Sweden

Kändisarna som föddes med pe

월드스타 중 '타고난 부자' 1위 싸이

스웨덴 최대 일간지 메트로가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았던 스타를 소개하면서 월드스타 싸이(psy)를 그 대표적 지위으로 소개했다. 메트로는 턱시도를 슈트를 입고 손으로 V자를 그리며 미소를 짓고 있는 싸이의 사진 한 장과 함께 그의 출생에 대한 간단한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은 싸이가 미국의 비벌리힐스와 비교되는 한국의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고 어머니 또한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코리안 사랑받는 '빅토르 안'

메트로 러시아 "귀화 안현수, 러에 메달 안겼지만 한국인들 여전히 응원" 집중 조명

러시아로 귀화해 새로운 스포츠 인생을 시작한 빅토르 안(안현수·사진)이 러시아 쇼트트랙 사상 첫 메달을 안겨 화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으로 참가,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쇼트트랙 부문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은 없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의 주목을 받은 그는 2분20초의 기록으로 가뿐하게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2분16초의 기록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빅토르 안은 한국의 이한빈을 제치며 앞서 나갔으며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 중국의 한톈위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특히 중국의 한톈위와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 순위를 결정지을 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결국 0.007초 차로 뒤져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인들은 그가 러시아 국가대표로 뛰며 메달까지 안겨줬지만 그를 '배신자'로 여기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온 이소영씨는 메트로 모스크바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안현수를 미워해야 하느냐"며 "안현수는 20세의 나이로 2006년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지금은 국적을 바꿔 러시아 팀에서 뛰고 있을 뿐 우리는 항상 그를 응원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온 성민씨는 "한국에서 쇼트트랙은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기에 선수층도 두텁다"며 "만일 무릎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재활을 되풀이하고 재활에 성공한다 해도 이미 그의 자리가 사라져 예전 팀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겠느냐"며 "안현수가 러시아로 국적을 옮겨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를 배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빅토르 안은 현재 러시아 빙상연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 러시아 대표팀에서 코치로 활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렉세이 슈나레브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Le Repair Cafe fait revivre vos objets

고장난 물건 수리 머리 함께 맞대는 리페어 카페 인기

남프랑스 코트다쥐르에서 오래된 물건을 고치는 '리페어 카페(Repair Cafe)'가 인기를 끌고 있다.

코트다쥐르에선 구식 제품이라고 버릴 필요가 없다. 바로 물건을 고치는 걸 배울 수 있는 리페어 카페가 있기 때문.

아틀리에에 들어가면 노련한 수리 전문가들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방법을 공유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터 자전거, 의류, 장난감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네덜란드에서 2009년 시작된 이 카페는 지난해에 프랑스로 들어와 지금까지 세 곳으로 늘어났다. 앙티브 지역의 카페 회장 파비엔느 아롱송은 "이곳은 교육적 효과가 상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수리를 배우면서 괜스레 낭비하고 버리는 걸 깨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리할 물건을 맡긴 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한 장소에서 다 함께 고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리페어 카페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건 자원봉사를 맡은 수리 전문가들 덕분이다. 파비엔느 회장은 "은퇴한 수공업자부터 아이를 키우는 주부까지 각종 물품에 대한 수리 지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원봉사가 가능하다. 거기에 각종 수리 전문가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30년이 넘은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도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쉽게 고쳐진다. 그는 "이곳에서 물건을 고치면 경제적인 데다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마르트 플레비에 부산당 기자 정리=정주희 인턴기자

파주 '적군묘지' 앞에서

권기봉의 도시산책 <58>

"오오, 여기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으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구상의 시 '적군묘지 앞에서'의 일부로 현재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북한군과 중공군 묘지, 이른바 적군묘지(사진)를 다룬 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한국전쟁 당시 남한 땅에서 사망한 북한과 중국 군인들의 유해를 북녘땅에 가까운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5km 떨어진 적군묘지에 안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68년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김신조와 함께 내려왔다 사살된 무장공비 30명과 98년 남해안 반잠수정 침투사건 때 사망한 공작원 6명 등의 유해도 이곳에 묻혀 있다.

이 묘지가 들어선 것은 "교전 중 사망한 적군의 유해도 존중해야 한다"는 제네바협정 추가의정서 제34조에 따라서다. 축구장 두 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북한군 유해 700여 구와 중국군 유해 420여 구 등 최대 1400여 구의 유해가 안장됐다. 무덤마다에는 각목으로 묘비도 만들어 세웠는데 간혹 이름이나 계급 등이 적힌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무명인'이라 적혀있다.

과연 이 유해들은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단 중국군 유해는 한·중 간의 협의에 따라 조만간 송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군 유해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유해는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자그마치 61년째다. 적군묘지의 무덤들은 망자들의 고향인 북쪽을 향하도록 배려해 그나마 북향으로 배치한 데에서 작은 희망이 엿보이기는 하나 남과 북 사이에는 더 큰 배려의 정신이 필요해 보인다.

/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2/14 金 해뜨는시각 07:23 해지는시각 18: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2/5
청주 -1/7
대전 0/7
전주 -2/7
광주 -1/10
제주 8/9
강릉 -0/2
울릉도 -0/2
대구
포항 2/4
울산 2/4
부산 2/7

감판이라도 손발이 저리거나 머리가 아프고 갑작스럽게 현훈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으니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2	9	8	6	1		
6		7				9		2
	9	5				7	3	
3								9
	7	4				6	1	
4		9				8		3
		3	8	4	7	5		
			3		9			

				7				
		1	3		6	7		
	6		9		5		8	
	3	8				4	6	
1				3				8
	7	4				1	2	
	2		1		7		4	
		3	4		2	8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저들이 미다시 리미티드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동기보다 진급 늦어 의기소침 내후년엔 인정 받으니 참아야

생이팅 남자 68년 8월 1일 음력 오후 2~4시

Q 승진이 더뎌 고민입니다. 동기들보다 많이 늦은 편이라 창피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입니다. 약간 내성적인 데다 친화력도 좀 부족합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 진심을 보이는데 알아주지 않으니 2015년 을미의 오기를 들기도 하겠으니 만년 부장으로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한숨 돌리면 어떨까 합니다. 2016년 지나 태어난 생일에 인비(印比)가 나를 생하주어 동궁의 오행기가 생당한 힘을 갖게 되므로 절처봉생(絶處逢生) 어려움에서 주변 도움이 따르는 형국이고 왕록(旺祿) 순여했는 녹봉의 기운이 있으니 직장에서 무난합니다. 2016년부터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선놓의 어색하지 마시고 외국어 공부를 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란 생각으로 지내세요. 지금은 캄캄한 곳에서 지내는 형국이지만 순수한 마음이 장애를 제거하게 되어 대인관계도 지금보다 원만해질 것입니다.

20대 이후 연애 한번 못했는데 올해 소띠 여정 만나 백년가약

콘서트 남자 72년 4월 26일 음력 오전 3시

Q 20대 때 여자랑 사귀어본 뒤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 이런 결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나름 사회성도 있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A 사주에서 배우자가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이 어려웠는데 2014년 풀어지는 운을 만나 배우자를 만나게 되니 결혼이 성사됩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할 것은 간여지동(干與支同)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본관과 동궁의 오행이 어깨를 견주는 사주라 내 배우자감을 남이 채어가는 형식이 되니 맞선이나 미팅 자리에 친구를 데리고 나가면 낭패가 됩니다. 소띠생과 인연이 있으니 눈여겨보시고 음력 6, 7월생은 피하도록 하고 상대 여성을 대할 때 부처님에게 불공드리듯 하십시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한번 돌아서면 뒤돌아보지 않으니 의리지상으로 인덕은 있어 자수성가하게 되니 급한 성격을 조금은 바꾸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 14일 (음 1월 1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자녀가 찾아와 기쁘게 한다. 60년생 부부 간 의견 충돌로 피곤하다. 72년생 너무 감정하면 다 된 밥에 코 빠트린다. 84년생 귀인이 도우니 뜻을 높여라.

소 49년생 진안밀은 해가 나도 참아라. 61년생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는 법이다. 73년생 기분 전환할 검사 생겨 흰 활성. 85년생 일이 생각대로 풀려 즐겁다.

호랑이 50년생 결단은 오후에 내리는 게 유리하다. 62년생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마라. 74년생 생각이 많으면 길은 더욱 복잡해진다. 86년생 쓸데없는 미련은 빨리 버려라.

토끼 51년생 손재수 있으니 돈 관리 잘하라. 63년생 목돈 들지만 이익은 크다. 75년생 유쾌하지 않은 일은 빨리 잊어라. 87년생 게으르면 자칫 두둑해질 수 없다.

용 52년생 자영업자는 매출 정추 된다. 64년생 공감할 이야기로 상대 마음 움직여라. 76년생 멀리서 희소식 날아든다. 88년생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뱀 53년생 상식대로 행동하라. 65년생 별병은 본질을 대변하지 못한다. 77년생 새 곳이 날개가 되니 적극 움직여라. 89년생 작은 것에 얽매이면 큰 행복 놓친다.

말 42년생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54년생 주변에 기댈 생각 버려라. 66년생 절망 속에도 희망의 기회는 있다. 78년생 온기가 걸하니 마음먹은 걸 진행할 것.

양 43년생 자기 관리에 신경 써라. 55년생 측근의 말을 너무 믿으면 낭패 본다. 67년생 작은 배는 큰 짐 못 싣으니 포부 키워라. 79년생 심적인 괴로움은 해소된다.

원숭이 44년생 집 수리는 나중에 하는 게 이롭다. 56년생 이사는 좀 미뤄라. 68년생 변수가 많아 신중한 처신이 이롭다. 80년생 남쪽에서 희소식 들려오니 기대하라.

닭 45년생 주장이 너무 강하면 고립된다. 57년생 역마살 발동해 움직일수록 지갑 두둑해진다. 69년생 물기 멀리 삼가라. 81년생 달콤한 말에는 함정이 많은 법이다.

개 46년생 묵은 체기 서 힘이 솟는다. 58년생 외출하면 안전사고에 주의하라. 70년생 방심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82년생 마음에은 대로 일어 안 풀려 답답.

돼지 47년생 건강 유지에 노력할 것. 59년생 어려움이 끝나고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자영업자는 큰 거래 성사돼 의욕 충만. 83년생 고전 끝에 큰 웃음 얻게 된다.

두번 넘어져도 벌떡…활짝 웃은 승희

소치 이모저모

패린턴 '아버지 소팔아 딴 금'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깜짝 금메달'을 딴 미국의 케이틀린 패린턴(25·사진)이 소를 팔아 뒷바라지해준 아버지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렸다.

패린턴은 경기 후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내 뒷바라지를 위해 농장의 소를 내다 팔아야 했다"며 "농장에서 보낸 유년 시절이 지금의 나를 터프걸로 만들었고, 오늘 올림픽 챔피언으로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부모님은 내가 스노보드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금메달을 땄으니 이젠 나를 위해 팔았던 소를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올림픽에 첫 출전한 패린턴은 2002 솔트레이크시티, 2006 토리노, 2010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촌에 데이트 앱 인기몰이

각국의 선남선녀들이 모인 올림픽 선수촌에 데이트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번 대회 여자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금메달리스트인 제이미 앤더슨(미국)은 13일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요즘 짝을 찾아주는 앱을 주로 쓴다"며 "데이트 상대를 만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은 지난해 등장한 '틴더'로, 정해진 장소 안에서 사진을 통해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앤더슨은 "산악 클러스터에는 귀여운 선수들이 많다"며 "하지만 올림픽에 집중하려고 나는 내 계정을 없앴다"고 말했다. /유순호·박진범기자

박승희(오른쪽)가 13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 1위로 달리다 뒤따르던 엘리스 크리스티(가운데)의 반칙으로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선두 달리다 상대에 밀려 넘어져 아쉬운 동메달 · 男 5000m 계주도 불운

sochi.ru 2014

박승희(22·화성시청)가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13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박승희는 54초207의 성적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500m는 전이경이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에서 딴 동메달이 처음이자 마지막 메달일 정도로 취약 종목이었다.

당시 파이널 B에 속했던 전이경은 파이널 A 출전 선수들의 실격으로 행운의 메달을 땄고, 이 종목 결승에 오른 것은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의 원혜경 이후 무려 20년 만이다.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 큰 수확을 올렸지만 이날 박승희의 레이스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중국의 왕멍이 부상으로 나서지 않은데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중국의 판커신과 류추훙마저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등 모든 조건은 박승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결승전 총성과 함께 가장 앞서 첫 바퀴를 돌던 박승희는 코너를 지날 때 뒤따르던 엘리스 크리스티(영국)와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의 몸싸움의 여파로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결국 4위로 달리다 혼자 넘어지지 않은 리젠러우(중국)가 45초263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최하위로 레이스를 끝낸 박승희는 크리스티가 실격을 당하면서 3위로 결승전을 마쳤다. 예선부터 줄곧 1위를 질주하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였던 박승희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웃음을 보이며 메달을 받아들였다.

박승희는 1000m와 1500m, 3000m 계주 등 네 종목에 모두 출전해 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최광복 코치가 여자 500m 결승에서 넘어지며 4위로 결기를 마친 뒤 울먹이는 박승희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김아랑(19·전주제일고)과 심석희(17·세화여고)는 여자 500m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이날 앞서 열린 남자 대표팀도 불운에 고개를 숙였다.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네덜란드와 선두 다툼을 벌이던 한국은 네 바퀴를 남겨두고 이호석이 넘어지는 바람에 3위를 기록했고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 쇼트트랙 남자 계주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은 12년 만이다.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2번 주자로 달린 러시아는 6분44초331의 기록으로 2조 1위에 올라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남자 1000m 예선에 출전한 신다운(21·서울시청)과 이한빈(26·성남시청)은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유순호기자 sunsu@metroseoul.co.kr

국가별 메달 순위

<14일 오전 1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독일	8	2	1
2	캐나다	4	4	2
3	노르웨이	4	3	6
4	네덜란드	4	3	5
5	미국	4	2	5
6	스위스	3	0	1
7	러시아	2	4	4
18	대한민국	1	0	1

이상화 1000m는 12위…"5월 웨딩마치"

이상화(25·서울시청·사진)가 1000m에서 12위를 차지하고 대회를 마감했다.

이상화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에서 1분15초94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은 중국의 장훙(1분14초02) 은메달과 동메달은 이레인 뷔스트(1분14초69), 마르곳 부르(1분14초90·이상 네덜란드)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상화는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인 남자친구 이상엽 중위(26)와 오는 5월 결혼할 것이라고 14일 해군 관계자가 전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이 중위는 해군 2함대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달 진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정훈장교로 옮겨 복무 중이다.

그는 부대장 승인을 받아 지난주 소치로 떠나 현지에서 연인을 응원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후회없이 준비…베스트 보여주겠다"

김연아 결전의 땅 소치 입성
"마지막 경기 타 시합과 같아 긴장만 안하면 잘할수 있어"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결전의 땅 소치에 입성했다.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참가하는 김연아는 13일 오전 소치 아들레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다.

소치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자 싱글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김연아의 소치 입성에 현지 언론은 물론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마지막 출전이라는 점과 카타리나 비트(독일) 이후 26년 만에 올림픽 여자 싱글 2회 연속 우승에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전의 땅 소치를 밟은 김연아는 "경기하는 날 저의 베스트를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시즌 동안 준비하면서 이날이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게 됐다"면서 "경기까지 긴 일주일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며 우승을 차지한 김연아는 이번 소치올림픽에서도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가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 국제공항으로 김해진, 박소연과 함께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김연아는 밴쿠버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이번에도 똑같다"면서 "저의 베스트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회가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연아는 20일 쇼트프로그램, 21일 프리스케이팅을 앞두고 소치에 머물며 담금질을 이어간다.

그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면 흐트러지고 집중을 못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른 시합과 다름없다"면서 "실전의 날에 긴장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한편 이날 김연아와 함께 여자 싱글에 출전하는 김해진(17 과천고)과 박소연(17 신목고)도 함께 소치에 도착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하던대로만 하면 연아 금메달 딸것"

美피겨 전설 커즌 밝혀

올림픽 남자 피겨 싱글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자 영국 BBC 방송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로빈 커즌(57 영국)이 김연아(24)의 금메달을 예상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일이 다가오면서 러시아의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6)에 대한 우승 기대감이 지나치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커즌은 '러시아 샛별'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김연아가 우세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커즌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리프니츠카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니어 데뷔 무대를 치렀다"면서도 "김연아는 늘 해왔던 것처럼 은반에 서서 연기할 것이다. 한국에서 열린 종합선수권대회와 같은 연기를 펼치면 우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순호기자

리프니츠카야 모스크바 훈련…대중과 거리두기?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의 맞수로 급부상한 러시아 '피겨 요정'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5 사진)가 언론과 대중의 지나친 관심을 피해 모스크바로 피신(?)해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니츠카야의 안무를 맡고 있는 일리야 아베르부흐는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 루스카야슬루즈바 노보스테이와의 인터뷰에서 "리프니츠카야는 지금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면서 "소치에선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없었지만 모스크바인근으로 옮긴 후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소재를 파악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

리프니츠카야와 투트베리드제 코치는 단체전 경기가 끝난 바로 뒤인 11일 소치에서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겼다. /이진환기자 tak0427@

믿었던 데이비스마저 노메달 쇼크… '당황한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1000m 최강자 샤니 데이비스(32 미국)가 주 종목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현지 언론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미국 뉴욕 데일리뉴스는 13일 "숀 화이트, 보드 밀러에 이어 데이비스마저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스는 이날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1분09초12로 8위에 그쳤다.

2006년과 2010년 1000m 우승자 데이비스는 스피드 스케이팅 사상 최초 단일 종목 3연패 를 노리고 소치에 입성해 각국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데이비스는 경기 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자신이 경기에 임했는데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승 후보들의 연이은 부진에 당황한 미국 언론은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USA투데이는 "동계올림픽 역사를 새롭게 쓰려던 선수가 황당한 사건을 일으켰다"면서 데이비스의 부진을 꼬집었다. /양성운기자 ysw@

한국 스켈레톤 대표팀의 무서운 신예 윤성빈(20 한국체대)이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다.

윤성빈은 14일 오후 9시30분 러시아 소치의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리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남자 예선 경기에 출전한다.

올 시즌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륙간컵 정상에 오르는 등 국제대회에서 경험과 자신감을 쌓으며 소치행 티켓을 따냈다.

2년 전 신림고 재학 시절 스켈레톤에 발을 디딘 윤성빈은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서 뛴 지 1년 반 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등 급속도로 기량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의 목표는 15위에 드는 것이지만 성장세를 고려할 때 10위권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올림픽에는 이한신(전북연맹)도 출전해 한국 스켈레톤 사상 최초로 2명이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유순호기자 suno@

소치 하이라이트
14~16일 한국 주요 경기(한국시간)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작	한국 선수
14(금)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클래식	16시	황준호
	컬링	여자 예선 한국-일본	16시	신미성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엄민지
	스켈레톤	남자	21시30분	이한신 윤성빈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5km	23시	문지희
15(토)	스키점프	남자 라지힐	2시30분	강칠구 김현기 최서우 최흥철
	쇼트트랙	여자 1500m	18시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22시30분	김철민 주형준
	스켈레톤	남자	23시45분	윤성빈 이한신
16(일)	컬링	여자 예선 한국-영국	15시	신미성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엄민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	23시	김보름 노선영 양신영

프로농구 전적 13일

동부	21	15	17	19	72
전자랜드	16	10	19	20	65
LG	12	24	14	27	77
오리온스	17	8	24	22	71

프로배구 전적 13일

도로공사	3	1	KGC인삼공사
LIG손해보험	3	1	삼성화재